

대입개편 '정시확대' 권고 유력

교육부 "정시확대 권고시 입법조치 필요" 법안 비개정시 재정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입개편 최종안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정시 확대가 포함될 경우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내일 국가교육회의가 내놓는 권고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를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

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은 23.8%(2019학년도 대입 기준)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

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1안'을 가장 많이 지지(52.5%)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현행보다 정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수시,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인데 공론화 조사 결과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형 비율 결정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시확대 여부를 재검지

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수시확대 기초를 이어오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를 유도해온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개편 권고안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원광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익산 남성고 2학년 재학생 86명을 위한 '2018학년도 진로체험캠프'를 열었다.

원광대, 여름방학 맞아 고교 진로체험캠프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여름방학을 맞아 익산 남성고 2학년 재학생 86명을 위한 '2018학년도 진로체험캠프'를 열었다.

LINC+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7월 말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진로체험캠프는 전기전자정보, 화학융합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총 4개 계열로 나눠 각 학과에서 학생들이 직접 진로체험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과 및 진로 분야를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계열별 이론 수업과 연구소 견학, 공학 실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호평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송문규 LINC+사업단장은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대 2019학년도 수시모집... 내달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

학생부종합 402명 · 학생부교과 893명 · 실기위주 50명 등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19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군산대학교는 전체선발 1865명의 72%인 1345명을 모집한다.

전형별로 보면 정원 내에서는 학생부종합(새만금인재전형) 336명,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자녀전형) 6명,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8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20명, 학생부교과(일반전형) 667명, 학생부교과(지역고교출신자전형) 128명, 실기위주(어학능력우수자전형) 8명, 실기위주(음악·미술·체육특기자전형) 42

명, 정원 외에서는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52명, 학생부교과(특성하고교출신자전형) 26명,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전형) 17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3명, 학생부종합(선취업후진학전형) 3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단, 선취업후진학전형 제외)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 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 전형 및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별도의 자체고사(면접고사 등)없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모든 전형 모든 학

과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의 변화이다.

전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서는 1단계에서 학생부 34.4%, 서류평가 65.6%를 반영하여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7%, 면접 59.3%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올해(2019학년도) 선발부터는 학생부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요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군산대학교는 계열 간 교차지원이(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음) 가능하며, 수시모집에서 최대 2회 지원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 1회,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위주전형 1회로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에 있어서 각각 지원할 경우 2회로 계산됨을 인지해야 한다.

합격자는 12월 14일 오후 6시 이전 군산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hak.kunsan.ac.kr/main/main.action>)에서 발표예정이다. 수시지원 원서 접수는 온라인 유크이(www.uwayapp.com)와 진학사(www.jinhakapp.com)에서 가능하다.

정시는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 후, 1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민 의견 수렴해 과목 신규 개설

군산대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주간이고,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접수 방법은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ife.kunsan.ac.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방문접수(☎063-469-4915~7) 모두 가능하다.

2개 이상 교과목 수강자나 누적 정규 3학기 등록자, 공무원 및 사립교원(어린이집, 유, 초, 중, 고교)에게는 10% 수강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누적 정규 5학기 등록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군산대학교 가족회사 직원 등에게는 수강료 20%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설과목은 교육복지분야, 전문직업분야, 교양 및 생활교육분야, 유아아동교육분야, 건강체육분야, 어학교육분야, 예술교육분야 등 7개 분야 154개 과목이다.

매년 지역민의 의견과 시대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올해에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19개 과목을 신규 개설하였다.

신설 과목은 다음과 같다. 힐링 역사문화 기행지도사, 한국전통무용(고급), 스키나 라인댄스, 베이직 라인댄스, 정원조성 및 관리와 취미양봉, 바둑, 유리드믹스 파이프 교수법, 밤상머리 명심보감, 쯤바댄스, 드라미시리, 상담사, 트레몰로 하모니카, 알기쉬운 테니스, 인지화상에서 힐링까지 컬러링도안화 만들기, 웃음운동지도자자격증 과정, 바른자세를 위한 운동 트레이닝, 중국어(초급), 골프 등이다.

군산대학교는 또한 학점 은행제 과정인 보육실습과목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보육관련 교과목 총 6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전북지역 실습생 30명을 모집 중이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다. 단, 보육실습과목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국내 대학원생 '글로벌 박사' 로 키운다

교육부, 등록금·생활비 등 최장 5년간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모든 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박사과정 학생 257명을 선정해 연간 등록금·생활비 등 최대 3000만원의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대상자 25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가 3월29일 사업을 공고해 5월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60개 대학에서 총 1356명이 지원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연구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257명은 매년 연구·학업 계

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받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연구·학업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연간 등록금·생활비 등 최대 30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3~5년(박사과정 2+1·석·박사 통합과정 2+3)이다.

교육부는 매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즈(Global Ph.D Fellows)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 성과 발표 및 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국제공동연구, 해외 학회 발표 등 해외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선정된 대학원생들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전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